

〈설립〉

동부유라시아론의 저서 3종 소개

동국대 동양사연구실

〈목차〉

1. 『중국과 동부유라시아의 역사』
2. 『당-동유라시아의 대제국』
3. 「당제국의 멸망과 동부유라시아」

근래에 들어 동아시아론과 동부유라시아론을 둘러싼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¹⁾ 두 관점이 제기된 일본의 연구자들이 그간 발표한 논문 가운데 한국어로 쓰이거나 번역된 것을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金子修一 저, 정병준 역, 「동아시아 세계론」, 『역사와교육』 12, 2011(원래는 2010).

이성시 저, 박경희 역, 「동아시아세계론과 일본사」, 『투쟁의 장으로서의 고대사-동아시아사의 행방』, 삼인, 2019(원래는 2016).

上田信 저, 임성모 역, 「동유라시아라는 공간」, 『동유라시아 생태환경사』, 어문학사, 2016(원래는 2006).

1) 최재영, 「일본의 '동부유라시아' 연구의 전개와 향방」, 『중국고중세사연구』 61, 2021; 정동준, 「동부 유라시아론이란 무엇인가?」, 『고조선단군학회』 46, 2021 등 참조.

廣瀬憲雄 저, 이유진 역, 「동부유라시아와 동아시아 -정치권과 문화권의 설정」, 『동국사학』 69, 2020(원래는 2018).

杉山清彦, 「중앙유라시아와 동부유라시아」,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편, 『동유라시아 세계의 역동성』, 경인문화사, 2022.

古畑徹 저, 임습기 역, 「동(부)유라시아라는 사고방식 -최근 일본에서 고대 동아시아사 연구의 신동향」, 『동국사학』 75, 2022(원래 2022).

小宮秀陵, 「한국고대사 연구에서 동아시아론과 동부유라시아」, 『중앙사론』 58, 2023.

이성시 저, 안현선 역, 「동아시아사에서 동부유라시아사를 조망하다」, 『동국사학』 80, 2024.

이 중 동부유라시아론에 관한 내용을 보면 아직 이론적 성격이 강하다는 느낌이 든다. 이 경우, 해당 관점이 실제 연구에서 어떻게 구현되는가라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될 수 있다. 기실, 같은 동부유라시아론자라고 해도 서로 다른 관점들이 존재하고, 따라서 실제 연구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글은 동부유라시아론이 실제 역사 서술이나 연구에서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지금까지 여러 성과가 나와 있지만, 여기서는 그 주요 논자 3인의 저작에서 중요 부분을 발췌하여 소개해 보는 방식을 취하겠다.

1. 佐川英治·杉山清彦 編著, 『中國と東部ユーラシアの歴史』, 放送大學教育振興會, 2020.
2. 森部豊, 『唐 -東ユーラシアの大帝國』, 中央公論新社, 2023.
3. 新見まどか, 『唐帝國の滅亡と東部ユーラシア -藩鎮體制の通史的研究』, 思文閣出版, 2022.

이 중 1은 중국사 전체를 서술한 개설서이고, 2는 唐代를 대상으로 한 저작이고, 3은 당의 멸망에 초점을 맞춘 저작인데, 모두 동부유라시아론의 관점에서 중국사를 이해하고 있다.

1. 『중국과 동부유라시아의 역사』*

1) 후한 시대의 동부유라시아²⁾

후한의 성쇠

光武帝(재위: 25~57)는 전란으로 황폐해진 장안을 포기하고 수도를 낙양으로 옮긴 후 군비를 축소하는 등 농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학교 제도를 정비하여 유교 보급에 힘썼다. 이 때문에 유교는 크게 성행하여 국교로서의 지위가 확고해졌다. 베트남에서는 쯩쯩(徵側)·쯩니(徵貳) 자매가 주도한 반란이 일어났지만 이를 진압했고, 북쪽에서는 흉노가 남북으로 분열되어 남흉노가 후한에 복속하였다. 또 57년에는 왜의 奴國의 사자에게 ‘漢委奴國王’의 金印을 사여하였다. 광무제 다음의 明帝 시대에는 인도에서 승려가 포교하러 방문했고, 명제는 그들을 위해 중국 최초의 절이라고 하는 白馬寺를 건립했다고 전해진다. 명제가 창건한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차치하고 후한 시대에 불교가 전해져 일부에서 신앙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사실이다.

1세기 후반에는 북흉노가 동쪽에서는 烏桓·鮮卑, 북쪽에서는 丁零,

* 1)은 정해인 번역, 2)와 3)은 임슬기 번역. 중간에 (지도) 혹은 (그림)이라고 표시한 것은 '원문 참조'라는 의미이다.

2) 제4장 「중화의 확산과 다원화」(佐川英治)의 제1장이다.

남쪽에서는 남흉노로부터 일제히 공격을 받아 모습을 감추었다. 유럽에서 훈족으로 모습을 나타낸 것은 이 흉노의 서쪽으로 이동한 사람들이라고도 한다. 이 무렵 『漢書』의 저자인 班固의 동생 班超가 서역 경영에 활약하고 아울러 97년에는 甘英을 大秦(로마제국)으로 파견하였다. 감영은 로마까지는 이르지 못했으나 條支(시리아)로 들어가 大海(지중해)에 이르렀다가 귀국하였다. 107년에는 왜국왕 帥升의 사자를 맞이하고, 또 166년에는 ‘大秦王 安敦(로마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안토니우스)’의 사자가 日南郡(현 베트남 중부)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 사자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적어도 메콩 하류의 크메르인 나라인 扶南(1세기 말~7세기)에는 로마 문화가 도달하였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북흉노가 사라진 몽골고원에는 동부로부터 선비와 오환이 진출하고 한의 변경도 침입을 반복하였으며, 장안과 서역을 연결하는 河西回廊에서는 羌族의 활동이 활발해졌다. 후한은 이에 대해 “夷로써 夷를 토벌하는” 정책을 사용했다. 한에 복종한 세력에게는 率衆王·歸義侯·邑君·邑長 등의 관작을 주어 內屬을 허락하는 대신에 使匈奴中郎將·護羌校尉·護烏桓校尉라고 하는 異民族 統御官에게 그들을 통솔시켜 한을 위해 싸우게 하였다. 혹은 전쟁 포로 등이 노예로 팔려 장원 경작에 종사하거나 무력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兩漢 교체기의 혼란과 낙양으로의 천도에 의해 關中의 인구가 격감하자, 그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서방의 강족이나 氏族을 많이 강제 이주시켰다.

和帝(재위: 88~105) 무렵부터 후한의 궁정에서는 외척과 환관의 대립이 격해졌다. 그러나 사회는 아직 안정되어 광무제 시대에 약 2,100만 명이었던 인구는 화제 시대에 5,300만 명을 넘어서고 이후는 5,000만 명을 조금 밑도는 정도를 유지하다가 157년에는 5,600만 명에 달하였다. 그러나 2세기 후반에 들어 후한 왕조는 급속히 힘을 상실한다. 흉노나 오환·선비·강이라는 여러 민족과의 항쟁이 격화되고 동시에 자연재해가 많

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169년에는 破羌將軍 段熲이 엄한 탄압으로 관중 강족의 반란을 평정했지만, 북방에서는 檀石槐가 선비를 단결시켜 새로운 한의 위협이 되었다.

기후의 한랭화와 황건의 난

같은 무렵 유라시아 대륙의 중앙부에서도 훈족의 西進이 시작되었다. 이 시대에 기후가 장기간 한랭해진 것이 유목민의 남하를 재촉했다고도 한다. 실제로 2세기부터 6세기에 걸쳐 동아시아 지역이 한랭기에 들어갔음을 나타내는 지표는 적지 않다. 일본에서는 ‘古墳寒冷期’라고 불리는 시대이다. 한랭화는 동시에 건조화를 촉진한다. 실은 빈번하게 水害가 반복된 전한 시대와는 달리 후한에서 위진남북조시대에 걸친 시기의 황하는 상당히 안정된 상태였다. 황하의 안정화는 아마도 건조에 의한 것일 것이다. 건조는 장성 남쪽의 황토고원을 초원화하여 유목민이 진출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었다고 생각된다.

한편, 후한의 궁정에서는 외척과 환관의 항쟁이 점점 과격해졌다. 외척이란 황후나 황태후(황제의 모친)의 일족이며, 환관이란 생식 능력이 상실된 남성으로 후궁이나 황제를 시중드는 자이다. 한대에는 황후와 황태후의 권한이 강하여 외척이 권력을 쥐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한 외척이 황제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황제는 환관의 힘을 빌려 외척을 탄압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외척은 호족층을 기반으로 하는 유가 관료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며 대항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166년 桓帝(재위: 146~167)는 환관의 진언을 받아들여 유가 관료 200여 인을 終身禁錮(出仕 금지)에 처하였다(제1차 黨錮의 禁). 靈帝(재위: 168~188)의 169년에는 약 1000인이 사형을 포함한 처벌을 받았다(제2차 당고의 禁).

그런 중 급속히 신자를 확대한 것이 오늘날의 河北省에서 張角이 일으킨 太平道와 四川省에서 張陵이 일으킨 五斗米道(天師道)이다. 장각은

黃帝와 老子를 신봉하는 교단을 창설하여 태평세상의 도래를 설파함과 아울러 죄를 참회하고 주술을 행하면 병이 낫는다고 하였다. 또한 장릉은 신자들에게 『노자』를 암송하게 하고 동시에 신자를 조직하고 ‘義舍’를 설립하여 빈자에 대한 구제활동을 행하였다. 유교가 기반으로 한 혈연·지연의 사회가 동요하는 가운데 장각과 장릉은 개인에 의한 구제방법을 보여 사람들을 선행으로 이끌고 신앙의 힘으로 無緣의 사람들을 결속시켰다. 장각 등의 교단조직 확대에 위기감을 느낀 조정이 탄압으로 임하려 하자 184년 태평도 신자들은 하복을 중심으로 하남·산동의 각지에서 봉기하였다. 사람들은 노란색 천으로 머리를 둘렀기 때문에 황건의 난이라고 한다. 황건의 난은 1년도 되지 않아 진압되었지만, 그들의 슬로건은 “蒼天은 이미 죽었고 黃天이 마땅히 설 것이다”라는 것으로 한 제국의 종언을 선언하는 것이었다.

2) 8세기의 당과 동부유라시아³⁾

율령체제의 동요

태종의 뒤를 이은 고종은 부친과 달리 카리스마 있는 군주는 아니었지만, 모친은 관룡집단 계열의 長孫皇后였고, 황후의 오빠인 長孫無忌가 후원하였다. 그런데 고종은 武照(뒤에 則天武后)를 총애하면서 관룡집단 계열의 王皇后를 폐위하고 마침내 무조를 황후로 세웠다. 이에 반대한 장손 무기는 황후가 된 무조에 의해 자살로 몰렸다. 무후는 병약한 고종을 대신하여 정치 실권을 장악하고 고종에게 泰山에서 封禪을 행하게 하거나 고구려원정을 성공하게 하는 등 공적을 올리고 고종을 天皇, 자신을 天后라고 칭하였다. 봉선은 위업을 이룬 황제가 행하는 의식으로 과거에 이를 시

3) 5장 「수당제국과 동부유라시아」(佐川英治)의 제3절이다.

행한 이는 진시황과 한무제, 후한의 광무제 등 극히 한정되었다. 고종이 사망하자 무후는 아들 中宗과 睿宗을 차례로 꼭두각시로 세우고 정치를 행하며 반대파를 엄혹하게 탄압하였다. 이리하여 30년 가까이 정치 실권을 장악한 후 690년 황제(재위 690~705)에 즉위하여 국호를 周로 바꾸었다(武周革命).

무후는 중국 역사에서 유일한 女帝이고, 태종의 사업을 이어받아 당을 대제국으로 이끈 인물이다. 그러나 후세에 여성 황제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서 ‘武后(后는 황후의 의미)’로 호칭하는 것이 정착되었다. 무후는 낙양을 도읍으로 삼고 장안의 구세력과 거리를 두었으며, 과거출신자를 재상에 등용하는 것 등을 통해 과거관료가 진출하는 길을 열었다. 또 당 황실인 이씨가 老子(李耳)를 선조로 삼고 도교를 보호하였던 것과 달리 무후는 스스로 미륵불에 비유하였다. 그리고 그 이미지를 넓히기 위해 州마다 大雲寺를 설치하여 불교를 장려하였다. 훗날 이는 玄宗의 開元寺로 이어졌으며 일본의 國分寺 제도의 본보기가 되었다. 무후는 만년에 퇴위를 강요 받고 中宗이 복위하여 국호를 당으로 되돌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中宗의 황후인 韋后가 무씨 일족과 결합하여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여 황실의 이씨와 대립하였다(武韋의禍). 이 다툼을 제압한 것은 예종의 아들 李隆基인데, 이용기는 부친을 복위시키고 스스로 황태자가 되었다가 후에 예종의 양위를 받아 황제(玄宗)가 되었다.

현종(재위 712~756)의 치세는 44년간이나 되는데, 전반의 開元 연간(713~741)과 후반의 天寶 연간(742~756)으로 나뉜다. 전반은 姚崇과 宋璟 같은 과거 출신의 재상이 활약하였고, 현종 자신도 정무에 힘써 ‘개원의 치’로 불리는 좋은 정치를 행하였다. 태종 시기에 1,235만 명 정도였던 당의 인구는 현종 시대에 들어 4,000만 명을 넘어섰고, 치세 말기 경인 755년에는 5,300만 명 가까이에 달했다.

균전제 하에서는 토지가 액면대로 지급되지 않아도 租庸調와 府兵의

부담은 동일하였다. 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1인에게 지급된 토지가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부담은 증가하였다. 당초 부병은 군공으로 官位를 얻거나 토지를 많이 지급받는 등의 특권을 얻을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군공의 남발에 의해 무후 경우에는 특권적 가치가 상실되었다. 부병은 무기·의복 등 장비를 스스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특권의 가치가 하락하자 사람들은 그 부담에 고통을 받게 되었다. 특히 부병의 부담이 있는 軍府州의 부담은 무거워서 逃戶라고 불리는 도망자가 증가하였다. 그래서 도호를 도망간 곳에서 호적에 올리고 客戶라고 부르며 輕稅만을 부과하여 개간한 토지를 등록하게 한 宇文融의 括戶政策이 시행되어 80만 호나 되는 객호와 그 토지를 호적에 올리는 것에 성공하였다. 또 빈부의 확대와 객호의 증가에 대응한 조세제도로써 경작면적에 따라 곡물을 징수하는 地稅와 戶等(빈부에 따라 9등으로 나눔)에 대응하여 錢을 징수하는 戶稅를 정비하였다.

군사 면에서도 부병제가 어렵게 되자, 증대하는 兵員의 수요에 응하기 위해 募兵制가 실시되었다. 본래 부병의 防人は 3년을 임기로 향리에 돌아가도록 하였다. 모병도 처음에는 기간을 정하였지만, 점차 장기화되다가 마침내 軍籍에 상주하게 되었다. 또 수도의 식량을 보충하기 위해 곡창지대인 강남으로부터 대량의 곡물을 장안에 운송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현종기의 개혁

현종 시대에는 이러한 율령제가 상정하지 않은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승외의 官’이라 불리는 使職이 많이 설치되었다. 轉運使는 오로지 낙양으로의 곡물 수송을 관장하기 위해 설치된 사직이다. 개원 시기에 전운사가 된 裴耀卿은 장강·회하 지역으로부터 장안에 이르는 수송 루트를 정비하여 대운하의 수송량을 향상시켰다. 고종 시기에 장안은 자주 식량부족에 빠졌지만, 배요경의 개혁으로 장안의 식량부족은 해결되었다. 또 鹽

鐵使는 소금의 전매를 관장하는 사직이다. 당은 처음에 소금 전매를 행하지 않았지만, 그 관직은 현종 시기에 설치되고 안사의 난 이후 상치되었다. 당대 후기에 엄철사의 역할은 중요해져 度支使·戶部使와 나란히 국가 재정을 담당하는 사직이 되었다.

군사 방면에서는 변경의 軍鎮을 관리하기 위해 10명의 節度使가 설치되었다. 이 중 만리장성 밖의 安西·北庭·平盧라는 3절도사에는 무관과 蕃將이 임명되고 장성 안의 7절도사에는 문관이 임명되는 것이 관례였다. 군진의 병사는 직업화되었기 때문에 식량과 급여를 지급해야 했고, 또 가족과 함께 생활하였기 때문에 이들을 통괄하는 절도사에게 군사, 민정, 재정 각 방면에 이르는 권한이 부여되었다.

현종은 후반에 들어 정치에 대한 열의를 잃고 환관 高力士를 중용하고 문벌귀족인 李林甫를 19년 동안이나 재상에 임명하는 등 정치를 위임하였다. 이림보는 재상으로 승진하는 코스인 절도사에 문관을 임명하지 않도록 하여 과거계 관료의 진출을 막는 한편, 자신의 정적이 되지 않는다고 본 蕃將 安祿山을 만리장성 밖의 평로절도사와 장성 안의 范陽節度使·河東節度使를 겸임하게 하였다. 안녹산은 이란계의 소그드인 부친과 투르크계의 돌궐인 모친 사이에서 태어난 胡人으로 6개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을 지녔고, 변경지대의 군진에서 활약하여 출세하면서 마침내 절도사까지 올랐다. 현종과 楊貴妃가 마음에 들어 하면서 10년 이상에 걸쳐 절도사의 지위를 유지하며 절대적 힘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이림보를 대신하여 현종에게 중용된 양귀비 일족의 楊國忠이 자신의 지위를 위협하는 것을 알고 안녹산은 755년 거병하여 낙양·장안을 함락시키고 이듬해 황제에 즉위하여 大燕國을 세웠다. 안녹산은 757년 둘째아들에게 살해되고, 그 뒤를 동료 史思明이 이었지만 사사명도 장남에게 살해되었다. 당은 위구르의 지원을 받아 어쨌든 반란을 진압할 수 있었지만, 그 사이 현종이 장안을 방기하고 蜀(四川)으로 도망쳤고 그 도중에 양귀비는 살해되었다.

안사의 난(755~763)은 현종의 권위를 실추시켰을 뿐 아니라 당 제국의 중앙집권지배에도 괴멸적 타격을 주고 반란 전 해에 약 891만호, 5,292만 명이었던 인구는 반란 후 약 193만호, 1,699만 명으로 하락하였고, 이후에 500만 호를 회복하였다. 하지만 현종기에 만들어진 유연하고 변화에 대응하기 쉬운 정치제도 때문에 당조는 이후 150년 가까이 명맥을 보존하였다.

주변 나라들의 발전

수당제국의 등장은 주변 민족들에게도 강한 자극을 주어 수당과 같은 중앙집권적 국가의 형성을 촉진시켰다.

東突厥은 630년 붕괴하여 당에 복속되었다가 682년 羈縻支配로부터 벗어나 일테리쉬 카간(부족들을 모은 카간을 의미)이 돌궐 제2카간국(682~744)을 세웠다. 자립한 돌궐은 당과의 사이에 때로 싸우고 때로 조공하며 때로 당으로부터 가한의 책봉을 받기도 하고 공주를 취하기도 하는 등의 관계를 맺었다. 8세기 중반에는 돌궐을 대신하여 위구르제국(744~840)이 흥성하여 강세를 과시하였다. 위구르제국은 표면상으로는 당의 신하라는 입장을 취하였으나 실제로는 絹馬交易를 통해 매년 당으로부터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또한 都城을 세워 정주생활을 시작하고 중국과의 교역에 활약하던 소그드인을 매개로 마니교를 수용하여 신봉하였다. 위구르는 9세기 전반에 키르기즈의 공격을 받아 멸망하였지만, 일부는 서쪽으로 이동하여 甘肅 지방과 天山 지방에서 왕국을 세웠다. 돌궐과 위구르는 소그드문자에서 발전시킨 돌궐문자와 위구르문자를 만들어 북아시아의 유목사회에 독자적 문자문화를 일구었다.

吐蕃은 7세기 초 송첸캄포 시대에 티베트고원을 통일한 왕국을 세우고, 7세기 후반에는 서역으로 진출하여 당과 오아시스 지역의 패권을 다투었다. 당으로부터 文成公主와 金城公主라는 황녀를 맞이하여 혼인관계를 맺고 당의 문화를 도입하였지만, 한편으로 인도로부터 불교 등을 들

여오는 등 독자적 티베트 불교를 만들었다. 특히 8세기에 강세를 떨쳐 오아시스 도시 지역을 지배하고 아울러 당과 회맹을 맺어 국경을 안정시켰다. 하지만 9세기 전반에는 내란으로 약체화되었다. 8세기 전반에는 당과 토번의 영향을 받으면서 현재 雲南省의 大理·昆明 지역에 티베트·버마계 민족의 南詔(?~902)가 흥기하였다. 10세기 초에 멸망하지만, 남조의 변명은 후에 大理國의 건국으로 이어졌다.

한반도에서는 6세기 신라가 세력을 폈지만, 아직 고구려 및 백제와 엄혹한 전쟁을 하고 있었다. 고구려와 백제는 수당제국의 성립 이전부터 중국 북조와 남조, 일본과 북아시아와의 사이에서 다양한 국제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 중에서의 중심적 역할을 하였다. 한편 고구려·백제에 비해 후발의 신흥국인 신라는 처음에 金春秋를 고구려와 일본에 파견하여 동맹을 탐색하였지만, 최후에 당과의 동맹을 선택하였다. 김춘추는 신라의 독자적 연호를 폐지하고 당의 연호를 채용하는 등 적극적인 친당정책을 추진하였고, 왕에 즉위하자(武烈王: 재위 654~661) 당과 연합하여 백제를 멸망시켰다. 당이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 신라는 한반도 지배를 둘러싸고 당과 전쟁을 벌였는데, 당은 돌궐 유민의 반란과 토번과의 전쟁에 힘을 소진하여 676년 安東都護府를 평양에서 요동으로 옮겼다. 그것에 의해 점차 당과의 관계는 안정화되고 735년에는 대동강 이남의 지배를 당으로부터 인정받았다.

한편 고구려의 고지에서는 698년 大祚榮이 고구려유민과 靺鞨族을 규합하여 震國을 세웠다. 震은 八卦의 하나로 동방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당은 회유책을 취해 713년 대조영을 渤海郡王에 책봉하였고, 대조영은 이를 받아들여 국호를 발해(713~926)로 고쳤지만, 그 아들 武藝王 시대부터는 독자적 연호를 정하여 자립의 자세도 보였다. 발해는 당을 모방하여 3省6部制를 도입하고 전국에 다섯 도성(五京)을 건설하였다. 그 중의 上京龍泉府는 당 장안성의 설계를 모방하여 조성되었다. 발해는 신라

와 대항하는 가운데 일본과 빈번한 교류를 지속하였다.

일본은 607년 왜5왕 이래 실로 약 130년 만에 隋에 使者를 보냈지만, 그 당초에 “해가 뜨는 곳의 天子가 書를 해가 지는 곳의 천자에게 보내는 데, 무탈하기를”⁴⁾이라는 국서로 알려져 있듯이 스스로를 대등한 위치에 두는 의식이 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煬帝의 대응은 “蠻夷의 국서에 무례한 것이 있으면 다시는 올리지 말라”⁵⁾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다음의 遣隋使가 지참한 국서는 존경의 의미를 담아 “동쪽의 天皇이 삼가 서쪽의 황제에게 아뢰입니다”(『日本書紀』)라고 시작하는 국서를 보냈다고 한다(‘天皇’은 ‘天王’이었다고도 말해진다).

수와 당에 의해 고구려원정이 반복되는 긴장의 가운데 일본도 乙巳의 變을 거쳐 천황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국가로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660년 당과 신라의 연합군이 백제를 멸망시키자 백제의 부흥을 획책하여 한반도로 파병하였지만, 663년 白村江 전투에서 당과 신라의 연합군에 패배하였으며 큐슈의 太宰府 근처에 水城을 쌓는 등 당의 내습에 대비하였다. 하지만 당은 신라와의 전쟁으로 일본에 대한 강한 태도를 취할 수 없었고, 신라도 일본에 和親을 구했기 때문에 일본은 신라의 상위에 서서 당을 이웃 국가로 보는 식의 대국의를 기르게 되었다. ‘일본’ 국호가 정해진 것도 이 시대였다.

7세기 말 당과 신라의 관계가 안정되자 일본은 701년 大寶律令을 제정하여 본격적으로 당의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하였고, 당의 均田制를 나라 사정에 맞추어 만든 班田收授法과 租調庸制 등을 정비하였다. 7세기에 외교교섭이 중심이었던 遣唐使의 역할도 8세기에는 문화 도입이 중심이 되고 唐風을 증시한 天平文化 시대를 맞이하였다. 견당사 중에는 阿

4) 『隋書』 권81, 倭國傳, “[煬帝]大業三年 … 其國書曰 ‘日出處天子致書日沒處天子無恙’云云.”(中華書局, 1827쪽).

5) 『隋書』 권81, 倭國傳, “蠻夷書有無禮者, 勿復以聞.”(1827쪽).

倍仲麻呂(698~770)와 같이 당에 벼슬하여 安南節度使의 지위까지 오른 사람도 나타났다.

3) 당송변혁과 동부유라시아의 변동⁶⁾

후기 당조의 재정국가화

당의 역사는 약 300년에 미치는데, 그 내실은 안사의 난을 경계로 전후 150년씩으로 거의 다른 왕조가 되었다고 해도 좋다. 지배영역 면에서는 타림분지·하서회랑이 위구르·티베트(吐蕃)에게 넘어가고 남조의 독립으로 雲南도 상실하여 그 세력권이 크게 축소하였다.

중양의 통제력도 약해져서 안사의 난을 계기로 내지에도 설치된 節度使가 군사만이 아니라 행정·재정의 권한도 장악하여 각지에서 반독립적인 세력을 형성하였다. 이를 藩鎮이라고 하였고, 중앙은 통제에 따르지 않는 反側이라고 불리는 번진(통제에 따르는 곳은 順地라고 함)의 동향에 고심하였다. 번진의 장령과 군대에는 안사의 난 중 반란군이나 그것에 대한 토벌군에서 나온 유목부족 출신자도 많았는데, 당은 통제가 어렵고 막대한 경비에 고통 받으면서도 그 군사력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후반기 당 왕조의 실체는 이들 각지 번진의 집합체에 지나지 않았고, 동부유라시아 최대의 군사력을 가진 위구르제국과의 화친관계와 경제 중심지로 성장한 강남지방에서 나오는 수입에 의해 지탱되고 있었다.

재정 재건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稅制 전환과 전매의 부활이다. 780년 시행된 兩稅法은 均田制·租庸調制의 균등부와 원칙을 방기하고 현주지에서 소유한 田土 면적에 따라 稅·勞役을 부과한 것에서 유래하였고, 錢納를 원칙으로 하였다. 양세라는 명칭은 麥田에는 夏稅, 粟田·稻田에는

6) 제6장 「동부유라시아의 변동과 재편」(杉山清彦)의 제1절이다.

秋稅를 부과하는 것에서 유래하였는데, 그 배경에는 小麥(밀)을 製粉加工하여 먹는 粉食의 보급이 있었다. 또 앞 장에서 보았듯이 소금의 전매가 시작되어 큰 財源이 되어 있었고, 게다가 당대에 보급된 차에도 세금이 부과되었다. 세수도 전매수익도 강남지방이 수입의 주축이었고, 이를 대운하로 북으로 보내 수도 유지와 군사비에 사용하였다. 당은 안전보장을 재화로 해결하는 재정국가로 변모하였던 것이다.

강남은 順地였지만, 과중한 수취로 인해 9세기 중엽이 되면 반란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875년에 소금 밀매상인이 일으킨 黃巢의 난은 그 최대의 사건으로 약 10년에 걸친 대란으로 발전하여 洛陽과 長安도 일시 점령되었다. 반란은 황소군의 장수 朱溫(당으로부터 兪忠이라는 이름이 사여됨)의 배반과 투르크(돌궐)계 유목군단을 이끈 절도사 李克用의 활약으로 평정되었지만, 재원이었던 강남의 혼란으로 당의 쇠퇴는 결정적이 되어 907년 실권을 장악하였던 주전충에 의해 황제 자리가 빼앗겨 멸망하였다.

오대십국의 구도

이 변동기의 동부유라시아에서 유력했던 것은 華北을 점거한 투르크계의 沙陀와 요하유역 몽골계의 契丹(거란)이라는 두 개의 유목세력이었다. 주전충의 라이벌이었던 사타의 이극용·李存勖 부자는 後唐(923~936)을 세워 주씨의 後梁(907~923)을 멸망시키고 이후 사타 무인이 後晉(936~946)·後漢(947~950)을 차례로 건국하였다. 이를 이은 後周(951~960)까지 화북에서 다섯 개의 왕조가 교체하고, 나아가 10여 개의 지방정권이 화중·화남에서 흥망하였다. 이들을 총칭하여 오대십국이라고 한다(지도). 서방에서는 敦煌의 歸義軍節度使와 뒤에 西夏가 되는 탕구트인의 定難軍節度使도 자립하여 10세기의 동부유라시아는 군웅할거 시대가 되었다. 하지만 각지에 자립적 정권이 할거하는 상태는 당 후반기에 이미 常態化되어 있었으며 당 황제 권위의 소멸에 의해 그것이 현재화된

것이기도 하다.

이 시대의 구도는 북방 유목국가인 키타이제국, 투르크계가 다수를 점하는 화북의 오대정권, 그리고 십국이라고 총칭되는 화중·화남의 지방정권(후한의 후신인 北漢만이 사타정권)이라는 삼층구조이고, 그 축이 된 것은 북의 키타이제국과 화북 사타정권의 대립이었다. 安祿山 군단 이래 화북에서는 당에 신속한 투르크계 유목집단과 투르크화 된 소그드계 무인이 세력을 쌓았고, 후당·후진·후한은 그들을 산하에 둔 사타=투르크 세력 간의 투쟁에 의한 정권교체이고, 후주도 그것을 이은 군사세력이었다.

후당을 제외한 오대의 왕조들은 강남과의 교통·수송을 증시하여 대운하와 황하의 접점이면서 물자의 大集積地였던 汴州(開封)에 수도를 두었다. 이는 전통적 권위와 군사상의 기능보다도 경제적 편의가 국가 수도 선정을 좌우하는 요인이 된 것이기도 하고, 또 실크로드를 통한 서방으로의 현관문인 장안보다도 강남과의 접점을 선택하였다는 점에서 수당대의 유라시아 규모의 교류·융합의 시대로부터의 전환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였다. 한편, 십국은 화중·화남에서 일어난 최초의 정권할거였고, 각 정권 아래에서 강남(吳越·南唐)에 더해 四川(前蜀·後蜀)·湖南(楚)·福建(閩)·廣東(南漢) 등의 개발이 진행되었다. 이들 나라들은 거의 현재의 省에 상당하는 범위로 분립되었고, 각 지역이 각각 국가를 존립시킬 수 있을 정도로 사회적·경제적으로 성숙하였던 것을 의미한다.

송의 성립과 군주독재제

960년 후주에서 또 정변이 일어나 군사령관인 趙匡胤(太祖, 재위: 960~976)이 군대에 추대되어 宋(북송, 960~1127)을 세웠다. 조광윤이 급사하자 실력자인 동생 趙匡義(太宗, 재위: 976~997)가 즉위하는 등 송도 초기에는 사타정권의 권력교체와 다르지 않았지만, 2대 약 40년의 치세를 거쳐 안정된 정권으로의 전환을 이루었다.

송은 황제 권력의 강화와 그것을 지탱하는 기구의 정비를 추진하여 안사의 난 이래 200년 이상 계속된 藩鎮의 할거와 무인 우위의 풍조를 억제하였다. 그를 위해 절도사의 권한을 축소하고 후임에 문관을 임명하는 것 등으로 번진의 세력을 해체하는 한편으로 군사력을 황제 직속군인 금군에 집중시켜 나갔다. 한편, 반복되어 온 군사 쿠데타를 막기 위해 금군을 세 조직으로 분할하고 군령권을 가진 樞密使에는 문관을 앉히고 무관의 지휘권을 제한하였다. 이리하여 후한 말 이래 이어져온 禪讓의 강요에 의한 왕조 교체극에 종지부를 찍었다.

정치·행정에서는 문인관료를 증용하는 방침을 정해 황제 독재의 기반으로 삼았다. 科擧는 隋代에 시작되었지만, 송대에 황제 자신이 행하는 최종 시험인 殿試가 창설되어 지방·중앙·궁중의 3단계제가 되었다. 이에 의해 과거 출신의 관료는 황제에 의해 직접 채용되는 것이 되어 권위가 높아짐과 동시에 황제와 관료 사이에 강한 결속이 생기게 되었다. 물론 인재 등용은 과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코스가 있었지만, 고위·고관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 합격이 필수가 되고, 과거는 문관·무관·恩蔭(父祖의 관위에 따라 일정한 관위가 주어지는 것)·買官 등 다양한 관원·등용법의 정점에서 서게 되었다. 귀족 중심의 수당시대에는 仕官 코스의 하나에 지나지 않았던 과거는 이리하여 송에 이르러 관료 등용의 중심이 되고 이후 20세기 초까지 지속되었다.

정부는 복수의 同中書門下平章事·參知政事が 수반이 되고 군령을 담당하는 추밀사와 함께 행정·군사를 총괄하였다. 지방행정에서는 수당 이래의 주현제를 재편함과 동시에 그 위해 감찰구역으로 路를 설치하여 광역을 관할하게 하였다. 이들은 거의 모두 과거관료가 맡았고 군대도 실전부대는 무관이지만 사령관에는 문관이 임명되었다. 중앙·지방 모두에 동급의 役職에 복수인이 임명되거나 직권이 중복되었으며 각각이 황제에게 직결되었다. 이렇게 하여 군주독재제가 확립되어 이제는 귀족 출신

의 재상이나 군대를 장악한 무인이 황제의 지위를 좌우하는 일이 없게 되었다.

송은 979년까지는 십국을 평정하여 화북과 화중·화남의 재통합을 이루었지만, 燕雲 16주로 불리는 河北·山西 북부 일대는 후진이 군사지원의 대가로 할양한 이래 키타이 영역이 되어 있었다. 서방에서도 오르도스에서부터 河西·青海 방면에는 甘州 위구르왕국과 정난군절도사의 夏州王國, 靑唐王國 등 투르크계·티베트계 세력이 할거하였으므로 그 판도는 역대 왕조 중에서 조금 작았다(지도).

당송변혁이라는 분수령

중국 사회를 통관할 때의 분수령은 당송변혁이라고 불리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일대 전환에 위치한다. 왕조명으로 칭해지지만, 왕조 교체를 기준으로 한 구분이 아니라 당 후반기인 8세기 후반부터 오대를 거쳐 송대의 12세기 경에 이르는 약 400년에 걸친 기간에 일어난 변동을 가리키는 것으로 제1장에서 언급한 內藤湖南의 제창에서 시작된 학설이다.

정치·사회 방면에서는 앞에서 보았듯이 황제 권력의 강대화와 그것을 지탱하는 과거관료제도의 확립, 귀족에서부터 사대부층으로의 지배층의 이행이라는 事象을 들 수 있다. 안사의 난에서 송의 성립에 이르는 과정에서 가문을 자랑해 온 귀족은 무인세력에 의해 몰락하고 또 사회·법제상에서 良賤제도 소멸되었다. 동란의 시대가 지나자 이제 귀족의 견제를 받지 않게 된 황제가 만민 위에 군림하며 과거에 의해 등용된 지식인을 관료로 마음껏 부리는 군주독재제와 문신관료제의 시대가 되었다.

과거는 태생의 出身를 묻지 않고 특권적 자격을 부여하는 대신에 그것을 가문이나 신분으로 세습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시스템이다. 과거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오랜 공부가 가능할 만큼의 재력이 필요하였지만, 수험자격 자체는 예외적인 신분이나 前科가 있는 가계를 제외하고 성인 남

자 모두에게 열려 있었고 또 합격에 의해 얻은 자격은 一代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신흥 유산층이 점차 官界로 진출하였다. 유학의 학식을 시험하는 과거에 합격한다는 것은 높은 도덕 능력을 수양한 인물로 인정된 것을 의미하였으며(현실의 인격이나 소행은 전혀 별개이지만), 합격자는 관료 신분을 가진 자로서 대우 받고 나아가 刑法·稅役에서 우대 등의 특권이 부여되었다. 이들 유학적 교양을 몸에 지닌 지식인은 사대부·독서인으로 불리며 고급 관료의 인재 공급원이 됨과 동시에 명망가로서 지역의 지도자가 되었다.

사대부는 경제적으로는 토지경영이나 상업을 영위하는 유산층이고, 많은 사람이 지주로서 토지경영을 행하였다. 당 후반기 이후 토지의 매매와 현주지에서의 납세가 일반화되고 법률상의 신분제도 거의 없어지게 되자, 농업에서는 소작계약을 바탕으로 한 고용관계가 확대되었다. 이러한 소작농을 佃戶(佃農)라고 하며 이후 근대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인 형태가 되었다. 전호는 지주와는 계약 관계에 있으면서 사회적인 상하관계의 예절은 요구되었으나, 신분적인 지배·예속관계는 아니었고 법률적으로는 기본적으로 동격이었다. 지주는 영주적인 존재가 아니라 사적으로 토지에 투자하여 농업경영을 행하는 상업적 자산가인 경우가 보통이었다.

세·역은 토지 사유를 인정하여 담세능력에 따라 과세하는 양세법에 의해 징수되었다. 이는 토지공유와 농민의 본적지 거주, 부담의 균등 부과라고 하는 북조 이래의 대원칙을 근본에서 전환시킨 것이고, 이후 勞役이 토지세에 통합되는 18세기 초까지 1,000년 가까이 이어져 세역제도·왕조 재정의 골격을 이루었다. 한편, 여러 세금을 일원화하여 간명하게 만든 대신 세액은 고정되었기 때문에 현실의 재정운용은 융통성이 결여되어 양세로 채울 수 없는 부분을 부가세라는 형식으로 징수하고 정규의 양세와 부가세는 표리일체의 형태로 계승되었다. 또 노역과 병역이 유리되어 병농 분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도 획기적이고 대신에 직업군대에 거액이 투

입되게 되었다.

사회경제 면에서는 이들 농업·세제에 더해, 도시·상업의 발전과 화폐 경제의 발달이 이루어졌다. 송의 개봉을 비롯한 역대 國都는 이전 시대보다 더 거대한 궁정·관료·군대가 집중하는 소비도시가 되고, 또 강남의 蘇州 등 상업과 수공업·무역 등에서 번영하는 상업도시가 각지에서 성장하였다(그림). 도시 내부에서는 당 말 이후 상업과 건축에 대한 규제가 느슨해지면서 점포영업이 성행하였고, 상점·노점과 연극·講談 등의 오락장이 길거리에 늘어섰다. 상품경제와 유통의 발달과 함께 도시의 교외와 교통 요지에는 市(草市·市集)·鎮 등이라고 불리는 시장 도회가 각지에 생겨났다.

사상·문화 면에서는 사대부를 담당자로 하는 새로운 유학이 성립·발전하였다. 그것은 경전의 주석을 중시하고 師弟 간에 전수하는 그때까지의 학문을 대신하여 경전에 나타난 이념을 추구하고 우주의 원리에서 인간의 생활방식까지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그 실천까지 지향하는 것이었다(개개의 사대부가 실천하였는가 아닌가는 별개이다). 새로운 학설은 경전에 독자적인 해석을 가하는 형식으로 사상적·정치적 주장을 전개하는 것에 의해 행해졌고, 송대 이후에 성행하는 목판인쇄는 서적의 출판을 통해 그 보급에 큰 역할을 하였다.

문예·예술 면에서는 당 후반기 이후 그때까지의 국제색 풍부하고 보편성이 높은 문화로부터 韓愈·柳宗元 등과 같이 풍토에 뿌리를 두고 漢代에 모범을 구하는 움직임이 성행하게 되었다. 이들 고문부흥의 움직임은 송대에 계승되고 歐陽脩와 蘇軾 등은 후대와 외국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채색벽화를 대신하여 수묵화가, 또 舞樂을 대신하여 樂曲에 맞추어 노래하는 詞(宋詞)와 대중연극인 雜劇이 유행하는 등 문화 조류에도 큰 전환이 있었다.

2. 『당 -동유라시아의 대제국』*

머리말

(ii 쪽) 당은 문화적, 인종적, 언어적으로 복잡하고 다민족으로 구성된 복합적 왕조였다. 당의 황실 그 자체가 선비족의 혈통 혹은 그 문화를 질계 이어받았을 뿐 아니라 당의 역사를 살펴보면 곳곳에서 투르크계의 기마유목민이나 이란계의 소그드인, 혹은 한반도 출신인 등 다양한 출처의 사람들이 활약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서장 「당의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4쪽) 일반적으로 일본인이 연상하는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부인 ‘중국 본토’라는 공간이지 않을까 한다. ‘중국 본토’란 황하와 장강 유역에 더해 동남 해안부(福建), 영남(廣東, 廣西), 雲貴(雲南, 貴州)를 포함한 공간으로 옛날부터 漢人이 살았거나 한인이 지배한 장소라고 할 수 있다. 한인들은 ‘漢語’를 母語로 사용한다. … ‘중국 본토(내중국)’에 대해 [여러 다른 종족이 사는 만주·내몽골·新疆·티베트라는] 네 개의 공간을 ‘외중국’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역대의 중화 왕조는 ‘중국 본토’만을 통치한 왕조(秦, 송, 명 등)도 있고, (5쪽) 두 공간을 지배한 왕조(원이나 청)도 있었다. …

(6쪽) 이와 같이 당의 역사를 공간적으로 바라보면 ‘안사의 난’을 사이에 두고 전반과 후반의 역사가 크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안사의 난까지는 ‘중국 본토’의 북부(황하 유역)와 몽골·만주, 그리고 동투르크스탄

* 정병준 번역

을 포함한 공간이 당 역사의 주요 무대였다. 이를 바탕으로 이 책에서는 이 공간(‘중국 본토’ 전역도 포함)을 하나로 보고 동유라시아라고 부르기로 한다. …

(6쪽) 이 책에서는 당의 역사를 동시대 유라시아의 움직임을 시야에 넣고 서술한다는 목적에 따라 ‘동아시아’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동유라시아’란 말을 사용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동아시아’라는 말은 설령 異論은 있다고 해도 일본과 중국·한국을 포함한 지역을 (7쪽)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 동유라시아와 중국이라고 하는 두 개의 공간을 포괄하는 관점에서 당의 역사를 그려 보려는 것인데, 이는 당을 ‘중국사’가 아니라 동유라시아에 전개된 역사로 파악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7쪽) … 일찍이 京都帝國大學 교수였던 內藤湖南(1866~1934)은 당과 송 사이에는 큰 단절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 이 역사관은 ‘당송 변혁’이라고 불리며 지금에 이르기까지 중국사 연구자에게 (8쪽)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 하지만 제2차 대전 이전의 일본에서는 內藤과 같이 중국 역사에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이는 일부의 전문가를 제외하면 많지 않았다. 거의 대부분의 일본인이 중국은 정제된 사회라고 생각하였던 것은 아닐까. 또 동양사학계에서도 일본의 대륙진출과 호응하듯이 만주와 몽골의 기마유목·수렵민의 역사를 연구하는 ‘滿蒙學’이 성행하였다. 이는 중국의 사회 내부로부터 역사를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것을 경시하거나 무시하고 중국 사회는 외부에서부터의 힘에 의해 ‘변화’·‘발전’한다고 하는 시점과 중첩되는 것은 아니었을까.

그 때문에 1945년 일본의 패전과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탄생은 패전 전에 일본인 일반이 가지고 있던 중국 역사에 대한 이미지를 깨뜨리는 큰 충격이 되었다. 왜냐하면 중국 사회는 그 내부에서 스스로 발전하는 힘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사회주의 중국의 탄생은 중국에도 노예제, 봉건적 농노제, 자본주의 사회를 거쳐 공산주의 사

회에 이른다고 하는 (8쪽) '세계사의 기본법칙'이 존재하였다는 것을 중국 자신이 증명한 것으로 보였다. 이리하여 패전 이후 일본에서는 갑자기 마르크스 유물사관에 의한 이 '기본법칙'을 중국사에 적용하려는 연구의 기운이 높아졌다.

(9쪽) 그런데 일본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하기 전 해인 1948년 동경제국대학 출신의 前田直典(1915~1949)이 内藤의 '당송변혁'설에서는 충분하지 않은 사회경제사의 문제점을 들면서 당까지는 '고대'이고 송부터 '중세'가 시작된다고 하는 새로운 시대구분론을 발표하였다. 이것에 의해 당은 '고대'인가 혹은 '중세'인가라는 시대구분 논쟁이 시작되고 일본의 동양사학계는 중국 역사를 그 내재적 발전력에 착목하여 연구하는 방향으로 향하게 되었다. ... 하지만 중국 사회는 서유럽 사회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구조를 가진 사회였다. 예컨대 중국에는 비록 작아도 자신의 토지를 가지고 경작하는 자영 소농민이 널리 존재하였는데, 이들을 노예 혹은 농노라는 개념으로는 모두 포괄하기 어렵다. 요컨대 생산양식으로 당 사회를 '세계사의 기본법칙'에 (10쪽) 무조건적으로 대입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 ...

(10쪽) 이러한 학계 경향과 병행하여 1980년대 이후 중국에서는 개혁·개방 정책에 의한 경제성장이 현저해졌다. 이는 중국이 스스로 발전하는 힘을 가졌다는 것을 세계에 알리는 한편, 제2차 대전 후에 태어난 일본의 젊은 중국사 연구자에게도 크건 적건 영향을 준 것은 충분히 예상된다. 요컨대 중국이 내재적 발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당연하게 되어 중국 연구의 접근법으로 '기본법칙'적인 관심이 낮아졌던 것이다.

어쨌든 21세기 지금의 일본에서는 당을 포함한 중국 역사를 공통의 시대구분으로 보는 기준은 아직 성립되어 있지 않다. 그뿐 아니라 글로벌화가 진행되는 현재에 있어서 국경이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경계 없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그 결과 유럽에서 생겨난 하나의 국가나 공동체를 체계적으로 묘사하는 데 편리한 시대구분이라고 하는 역사의 견해 그 자체에 대

한 의문조차 생겨났다. …

(11쪽) 또 시대구분의 입장에 서면 자신이 존재하는 지금의 시점에서 보아 과거 시대는 부정되어야 할 것으로 파악하기 쉽다(시간적 가치차별). 중세를 ‘암흑시대’ 등으로 보는 방식은 현재 서구에서도 수정이 가해지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도 그것은 보통의 견해였다.⁷⁾ 그것에 의하면 ‘중세’의 당은 ‘암흑시대’라고 하는 것이 된다. 하지만 적어도 당의 역사에는 ‘암흑’의 이미지가 없고(이 책에는 암흑같다는 서술도 있지만), 실제 당의 모습과도 다르다.

그래서 21세기가 되었을 무렵부터 시대구분에 보이는 우열의 가치관을 없애고 세계사의 형성을 보려는 새로운 시기구분이 제창되었다. 예컨대 일본의 妹尾達彦은 세계의 역사를 단순화시켜 3개의 시기로 나누었다.⁸⁾ 즉 제1기는 고전국가의 형성기(기원전 4000~기원후 3세기 전후)이다. 먼저 유라시아 각지의 大河 유역에서 초기 국가가 성립한다. 이때 현대에 통하는 제도·문화가 만들어졌다. 이어서 그 지역과 접하는 유목지대에서 기마유목국가 생겨나고 (12쪽) 이에 대응하여 농경문화권에서도 통일왕조가 만들어지고 고전 국가가 완성되었다. 다만 이 시기는 유라시아 각지의 고전문화권의 연결이 약하고 분산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제2기는 유라시아사의 형성기(4세기경~15세기경)이다. 이 시기는 기마유목민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것이 큰 특징이다. 기마유목민의 이동은 농경문화권에 생겨난 각지의 고전 국가에 타격을 주고, 그 결과 양 문화가 충돌하고 이윽고 공존·융합하게 된다. 동시에 기마유목민의 이동은 유라시아 각지의 도시를

7) [역자주] 宮崎市定의 이른바 ‘景氣變動 사관’을 의식한 말인지도 모르겠다. 즉 宮崎市定, 「吉川幸次郎 著, 『宋詩概説』(書評), 『東洋史研究』 22-1, 1963(宮崎市定 著, 磯波護 編, 『東洋の近世』, 中央公論新社, 1999 수록) 참조.

8) 세오 다쓰히코 저, 최재영 역, 『장안은 어떻게 세계의 수도가 되었나』, 황금가지, 2006, 46~53쪽.

연결하고 유라시아의 육상 네트워크 형성에 크게 관계한다. 그리고 이 시기의 마지막 주자로 몽골이 등장하고 유라시아의 통일로 연결되는 것이다. 제3기는 지구의 일체화가 진행되는 시기(16세기~현재)이다. 유럽 세력이 海路로 지구 전역에 진출하는 것을 계기로 유라시아와 다른 대륙들이 인간의 이동·정주에 의해 연결되고 정치적·경제적으로 일체화가 진행되어 현재에 이른다고 한다.

(12쪽) 당의 역사를 이 세계사의 시기구분에 맞추어 보면 제2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의 동유라시아에서는 3세기경부터 기후가 한랭해지고 이로 인해 몽골리아에 있던 선비와 羯 등의 기마유목민이 (13쪽) 차례로 황하 유역(북중국)의 농경사회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 그 이후를 중국사의 틀에서는 '남북조시대'라고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몽골리아에 유목국가인 柔然이 있어서 동유라시아 전역에서 보면 세 세력이 병립한 이른바 삼국 시대라고 해야 할 형세였다. ...

(14쪽) 그 隋는 남조 陳을 멸망시키고 중국을 하나로 통일하였다(589). 이리하여 수는 남중국에 온존되어 있던 중국 고전문화를 흡수하고 유목문화와 융합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 유산을 계승한 것이 당이었다. 즉 당은 기후의 한랭화에 의해 몽골리아로부터 북중국으로 이동한 기마유목민인 선비인이 한인 세력과 다른 기마유목민과 때로는 투쟁하고 또 때로는 공존해 가는 과정에서 탄생한 왕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시기구분의 특징은 동시기의 세계에서 일어난 事象을 가치의 우열을 배제하고 바라볼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종래의 시대구분에서는 동시기 지구상에 서로 다른 '발전단계'에 있는 사회가 존재한 것이 되지만, 시기구분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 또, 다른 지역에서 성립한 문화권·공동체·國家群의 교류와 서로의 영향을 가시화할 수 있고 비교연구가 가능하다.

'시기구분'으로 바라볼 때 당이 '고대'인가 '중세'인가 라고 하는 것은 문

제가 되지 않는다. (15쪽) 또 이 시대의 중국사를 이해할 때 중시되었던 ‘당 송변혁’은 유라시아의 동부에 있는 ‘중국’이라고 하는 공간 내부에서의 ‘작은’ 사회변동에 지나지 않게 된다. 이러한 견해는 지금까지의 중국왕조 중심사관을 상대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나아가 세계사가 형성되어 가는 제2기 前半에 당의 역사를 위치시키면 이 시기에 나타난 활발한 기마유목민의 움직임과 그것에 의한 유라시아 도시들 간 네트워크의 형성이 당의 흥망에 어떠한 관련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유라시아 규모의 시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

(17쪽) 당조의 유목적 색채를 [陳寅恪의 관롱집단설보다] 더 강하게 제시한 것이 중앙유라시아 사가인 杉山正明(1952~2020)이다. 그는 북위에서 당까지를 북위 황제를 배출한 拓拔氏를 중심으로 한 부족연합체를 세운 일련의 왕조로 파악하고, 이를 ‘탁발국가’라고 불렀다. … (18쪽) 다만, 예컨대 당 초기 정권의 구성원을 보아도 ‘관롱집단’ 외에 山東門閥과 江南門閥 등 옛 北齊系와 南朝系의 인물들을 볼 수 있기⁹⁾ 때문에 단순히 “당의 지배집단은 관롱집단이었다”, “당은 탁발국가이다”라고는 말할 수 없다. 이를 염두에 둔 새로운 당 역사의 서술이 요망된다. …

(20쪽) 다만 당조는 300년 가까운 역사를 가졌고 그 기간에 쭉 질게 유목색을 지녔던 것은 아니다. 유목의 기억은 점차 멀어지고 당조와 당 황실의 성격도 완만하게 변질되었음을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漢化’라고 하는 중국인(漢人) 중심주의와 같이 혼한 말로 끝내는 것은 팬츠은가라고 생각된다. 아무래도 우리에게는 한자를 사용하고 한자문화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모두 중국인(한인)이라고 생각하는 버릇이 있는 지도 모른다.

9) [역자주] 하워드 웨슬러, 「당초(唐初) 조정 안에서의 당파성」, 아서 라이트·데니스 트 위체트 엮음, 위진수당사학회 옮김, 『당대사의 조명』, 아르케, 1999 등 참조.

당의 경우, 확실히 한자문화를 받아들이고 또 진한시대부터 발달되어 온 ‘중국적’ 정치제도와 경제 시스템 위에 성립된 왕조라고 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고전 중국의 부활이 아니라 크게 변용된 것임에 틀림없다.¹⁰⁾ 그 변용을 가져온 것은 기마유목민의 존재이고 유목문화와 중국적 고전문화가 융합된 귀착점이 당이라고 할 수 있다. …

(21쪽) 그러나 실제로는 7세기 전반에 동돌궐이 멸망한 결과 몽골리아에서 북중국으로 적어도 10만, 최대 100만 규모의 유목민이 이동하였다. 또 8세기 중반 ‘안사의 난’에서는 동유라시아만이 아니라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로부터도 사람의 이동이 있었다. 게다가 8세기 후반부터 9세기 초에 걸쳐 티베트제국과 위구르제국의 충돌에 수반하여 투르크계의 沙陀와 그 외 부족이 동투르크스탄과 河西(甘肅省)에서 중국으로 이동해 왔다. 이들 인적 이동은 당의 역사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사람들의 광범위한 이동을 보지 않고 당의 역사는 묘사할 수 없을 것이다.

종장 「세계사 속의 ‘당송변혁’」의 제2절 ‘동유라시아 세계 속의 당조’

1) 다시 당조의 파악 방식

당은 일반적으로는 중국 역대 왕조의 하나로 간주되고 또 많은 전문가도 그런 시점에서 당의 역사를 연구하고 있다. 서장에서 서술한 대로 이러

10) [역자주] 박한제, 「新胡漢體制論」, 『위진수당사연구』 4, 1998, 36~40쪽; 박한제, 『대당제국과 그 유산 - 호한통합과 다민족국가의 형성』, 세창출판사, 2015, 399~400쪽; 妹尾達彦, 「都市の生活と文化」, 編輯委員會 編, 『魏晉南北朝隋唐時代史の基本問題』, 汲古書院, 1997, 393~401쪽 등 참조. 이 중 妹尾의 글은 관련 연구를 비교적 소상하게 소개하고 있다.

한 시점에 섰을 때 당 역사는 대략 안사의 난을 전후하여 크게 변화한다. 前半의 역사는 위진남북조시대로부터 이어진 귀족제의 전개와 ‘胡漢’ 융합의 과정으로 설명된다. 후반의 역사는 송대 이후로의 연속성이 증시되고 당 후반기에 생겨난 여러 가지 시스템의 전개가 말해진다. ‘당송변혁’이라고 불리는 이 시각은 지금도 중국사 연구의 명제로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당은 단순히 중국사의 틀 안에 가두어지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당을 동요시킨 ‘안사의 난’과 ‘황소의 난’을 비교해 보자. 얼핏 보면 ‘안사의 난’은 당시 일어난 유라시아 전역에서의 인적 이동과 깊은 관련이 있고, 그 의미에서 ‘국제적’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황소의 난’은 河南에서 발생한 국내의 동란이라고 이해되기 쉽다. 하지만 ‘황소의 난’도 중국 국내에서 완결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황소가 廣州를 함락시켰을 때 그때까지 지속되던 이슬람 세계와의 해상교역이 증시되었다. 안타깝게도 당시의 교역이 어느 정도 규모였는지는 不明하지만 광주성 안에 12만 인이나 되는 이슬람 세계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점을 생각하면 상당히 대규모로 행해졌다고 상상할 수 있다.

요컨대 당조는 당시의 유라시아 전역 안에서 어떻게 위치지을 수 있을 까라고 하는 시점은 이후 더욱 필요해 질 것이다.

2) 거란국의 건국

10세기 초엽 중국이라는 공간이 앞 절에서 서술한 것과 같은 정세였을 때, 동부유라시아라고 하는 보다 광역의 세계에서도 큰 변동이 일어났다.

당이 멸망한 907년은 당조의 元號로 말하면 天祐 4년이다. 이 해의 정월 13일 거란족의 耶律阿保機가 건국을 선언하였다. 당이 멸망한 3월 27일보다 2개월이 앞선 시점이다.

이 책에서 등장한 당의 거란족은 아직 복수의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으면서 때로는 당조의 지배에 편입되고 때로는 몽골리아의 유목정권에 종속

된 취약한 세력이었다. 그 거란이 통일과 독립으로 나아갈 조건이 점차 갖추어졌다. 그것은 당조가 '안사의 난'의 타격으로 인해 밖으로 뺏어나갈 힘이 약해진 것과 9세기 중엽에 위구르제국이 붕괴된 후 몽골리아에 그를 대신할 유목정권이 생겨나지 않은 것에 있었다. 이 때문에 몽골리아·만주에는 큰 정치적 공백이 생기고 이를 틈 타 거란족은 결집되어 갔다. 그리고 9세기 말까지는 가한을 배출하는 遙輦氏를 중심으로 하는 거란부족 연합체를 만들었다.

그런데 10세기 초에는 요련씨와는 다른 계통의 迭剌 부족 출신의 야율 아보기가 이 거란부족 연합체 안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그리고 그는 실력으로 거란의 가한이 되고 국호를 漢語로 '대거란국'이라고 칭하였다. 이는 아직 존속하고 있던 당조로부터의 독립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후 야율 아보기는 그때까지 3년 임기제였던 거란 가한의 제도를 바꾸어 스스로 종신의 가한임을 선언하고 새롭게 중국풍의 '황제'로 즉위하게 된다(916).

3) 당에서 생겨난 중앙유라시아형 국가

이 거란국은 종래의 일본 동양사학계에서 여진족이 세운 金과 몽골의 원, 그리고 만주족의 청과 함께 '중국 정복왕조'라고 불리며 중국 역대 왕조의 하나로 칭해졌다. 하지만 근년에는 거란국을 비롯한 이들 왕조를 중국사의 범주에서 분리시켜 시기구분으로 말하면 제2기에 유라시아 각자에 생겨나 몽골제국에 이르러 완성되었다는 '중앙유라시아형 국가'로 파악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언급되고 있다.

중앙유라시아형 국가라고 하는 것은 森安孝夫가 제창한 것으로¹¹⁾ 인구가 적은 기마유목민 등이 강력한 기마군사력과 교역에 의한 경제력, 그

11) [역자주] 모리야스 타카오 저, 권용철 역, 『실크로드 세계사』, 민속원, 2023(원래는 2020), 59~61쪽.

리고 문서행정 등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초원세계에 바탕을 두면서 인구가 많은 농경민·도시민이 거주하는 농경세계를 안정적으로 지배하는 시스템을 확립한 국가를 말한다. 이 유형의 왕조는 종래에 '정복왕조'로 파악된 거란국·금·원·청에 그치지 않고 널리 유라시아 각지에 탄생한 西夏王國, 西위구르왕국, 카라한조, 가즈나조, 셀주크조 등도 포함된다고 한다. 그리고 森安孝夫에 의하면 중앙유라시아형 국가의 원형은 발해국과 안녹산 세력, 그리고 위구르제국에 있었다고 한다. 안녹산 세력이란 안녹산과 그 휘하의 정치·군사집단을 가리키지만, 그 잔존세력이 바로 당에 대해 150년에 걸쳐 반독립을 유지하였던 河朔三鎮이다.

이 책에서 이미 언급한 대로 하삭삼진은 憲宗 시대에 한때 당조에 귀순하였지만, 대략 당조로부터 반독립의 상태에서 할거를 지속한 변진이었다. 그 때문에 종래의 연구에서는 하삭삼진을 당에서 송으로 변혁하는 가운데에 위치시키려고 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하삭삼진은 직접 당조를 무너뜨리고 다음 시대의 신세력을 구축하지 않았으므로 당송변혁 속에 정합적으로 적용시키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하삭삼진은 역사상 의미가 없는 존재인가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 하삭삼진의 역대 절도사는 그 많은 숫자가 쫓와 거란, 위구르, 소그드계 돌궐인이었다. 그 중에는 漢人也 있었지만, 유목문화에 물들어 있었던 것은 틀림없다. 또 그 휘하의 군단에는 상무 기풍이 넘치는 여러 종족집단 출신의 무인들이 있었다. 절도사는 이 무인집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고 그것을 위해 그들에 대한 급여를 지속적으로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 때문에 관할 영역내에서 조세를 징수하고 또 관내 농민도 보호하는 원활한 행정을 행할 필요가 있었다. 하삭삼진에서는 이와 같은 노하우를 어떻게 구축하였을까.

그것은 장안에서의 과거시험에 합격했음에도 관직을 얻지 못한 '실업자[浪人生]'를 하삭삼진이 스카우트하여 幕職官으로 이용한 것이었다. 유

목집단 출신의 지도자와 그 부하 군단 아래에 한자를 고도로 익히고 문서 작성의 능력을 가진 관료 후보생을 배치하여 농경세계의 통치방법을 모색한 것은 아니었을까. 당조가 멸망한 후 하삭삼진은 後唐과 거란에게 흡수되었다. 그때 사타계의 후당과 거란국은 이 하삭삼진의 노하우를 받아들였다. 그 결과 유목사회에 거점을 두고 소수의 유목계 지배자집단이 대다수의 농경민을 지배하는 왕조가 생겨났다.

이 의미에 있어서 290년에 걸쳐 동유라시아 지역에 군림한 당조의 역사적 존재의의의 하나는 이러한 중앙유라시아형 왕조를 준비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3. 「당제국의 멸망과 동부유라시아」*

이 책에서는 8세기 후반부터 10세기 초반의 동부유라시아 정세를 바탕으로 당 멸망의 과정을 새롭게 묘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고찰해 왔다. 그래서 여기서는 각 부마다 그 성과를 요약하면서 당 후반기의 역사 전개를 개관하고 아울러 서장에서 제시한 ① 安史軍 계열 번진의 세력 확립에 내륙아시아 세계와 해역아시아 세계의 세력이 어떻게 관여하였는가, ② 당대 번진체제의 변용에서 붕괴한 과정은 같은 시기의 동부유라시아 정세와 어떻게 관련됐는가, ③ 당대 번진, 특히 안사군 계열 번진의 역사적 의의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책의 요약으로 당의 멸망이 동부유라시아의 역사 전개 속에 어떻게 자

* 이는 『唐帝國の滅亡と東部ユーラシア -藩鎮體制の通史的研究』의 종장이다. 1)까지는 정해인, 2) 이하는 정병준 번역.

리매김할 수 있는지를 정리하고 싶다.

1) 안사군 계열 번진과 내륙 아시아세계·해역 아시아세계

제1부에서 代宗 시기부터 憲宗 시기에 걸쳐 번진체제가 정착해 가는 과정을 절도사의 혼인 관계를 단서로 고찰하였다. 당시는 안사의 난을 거치며 전국에 번진이 할거하게 되었을 뿐 안사군계 번진은 획득한 권력의 유지·계승 방법을, 조정은 그에 대한 대처법을 모색한 시기였다. 특히 안사군 계열 번진에 대한 대응은 황제마다, 혹은 같은 황제라도 시기마다 달라 일관된 방침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안사군계 번진도 자신의 주장과 朝廷의 자세에 따라 태도를 변화시켜 왔다. 조정과 안사군계 번진의 관계는 이 시점에는 아직 안정되지 않았던 것이다.

특히 안사의 난이 종결된 직후에 아직 반란의 여운이 짙게 남아 있던 대중 시기에는 이러한 불안정성이 현저했다. 그 때문에 안사군계 번진 사이에서는 藩帥 지위의 세습과 영역의 보전 등 다양한 권익을 유지하고 조정에 대항하기 위한 대규모 혼인 집단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이 혼인 집단의 핵심을 이룬 것이 成德節度使 李寶臣이었다. 그가 유력하게 된 배경에는 당시 華北 동부에서 널리 행해진 安祿山에 대한 신앙·숭배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보신은 안사의 난에서 살아남아 절도사까지 오른 유일한 안녹산의 假子였고, 한때는 安 성을 칭한 적도 있었기 때문이다. 옛 안사군으로 이루어진 군단을 통어하고 싶은 각 번수에게 있어서 안녹산과의 擬制的인 혈연관계를 가진 이보신과 결합하는 것은 매우 유리한 전략이었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성립 직후의 안사군계 번진에 있어서 안녹산에서 유래하는 권위가 극히 중시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종래에 번수 권력에 권위를 부여하는 것은 오로지 당 조정이라고 생각되었다. 하지만 안사의 난 직후 안사군

계 번진의 변수 지위는 당 조정뿐만 아니라 그것과 상반되는 안녹산의 존재에 의해서도 보증되었던 것이다. 번진의 군단 통어에 대해서는 종래에 조정과의 결합이 중시되었지만, 실제로는 그 이외의 요소도 작용하였던 셈이 된다(이상, 제1장).

다만 이 혼인집단은 이보신이라는 개인의 구심력에 의해 성립되었기 때문에 그가 죽자 아들의 세습 가부를 둘러싸고 조정과 안사군계 번진 사이에 대규모의 군사 충돌이 발발했다. 그때 成德·魏博·平盧라는 세 절도사는 盧龍節度使 朱滔를 맹주로 당 조정에 대항하기 위해 재차 연맹을 결성하였다. 이보신과의 혼인관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도가 맹주가 된 것은 그가 위구르의 王女와 결혼하였으므로 그 군사원조를 받기 쉽도록 할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실제로 주도의 요청을 받은 위구르는 하북에 침입하여 반란을 확대·혼란시켰다.

그런데 주도의 난 후 조정은 노룡절도사를 제외한 하북의 안사군계 번진과의 유대 강화에 노력하고 公主 降嫁를 집중적으로 행하였다. 그러나 안사군계 번진과 조정의 혼인 형태는 假公主의 존재와 번진 측으로부터 여자의 入嫁가 없는 점에서 외척 같은 국내 세력이라고 하기보다는 외국 세력, 특히 위구르에 대한 강가와 유사하였다. 이것으로부터 하북의 안사군계 번진은 결코 당 황제의 신변에까지 진출이 허락되는 세력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일정한 거리감을 지켜야 하는 존재로 인식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이상, 제2장).

한편 유목세계와 직접 인접하지 않은 하남에서는 山地 수렵민과 海商 등과의 연계를 찾을 수 있다. 이 책에서는 구체적 예로서 평로절도사를 들고 그것이 군사적으로는 산지 수렵민이었던 山棚과, 경제적으로는 해상 교역에 종사한 신라상인과 결탁하였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다만 산봉이나 해상은 반드시 평로절도사에만 귀속의식을 가진 것은 아니었고, 또 계절마다 이동하는 기동성이 높은 집단이었다. 그래서 평로절도사는 그들을

장악하기 위해 불교 사원을 이용하였다. 산봉·해상 쌍방이 모두 불교 사원을 거점으로 했기 때문에 평로절도사도 사원이나 승려와 접촉함으로써 산봉과 해상의 군사력·경제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것이다(이상, 제3장).

이상의 분석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안사군계 변진이 그 권력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안녹산의 권위나 위구르·산봉의 군사력, 해상의 경제력 등 다양한 요소를 이용하였다는 것이다. 변진의 군단에 유목 세력이나 소그드인이 포함되었다는 것은 지금까지도 지적되었지만,¹²⁾ 그들은 기본적으로 그 군단의 관할 영역을 활동권으로 한 사람들이었다. 이에 대해 위구르는 물론이고 산봉도 해상도 결코 개별 변진의 관내에 상주한 것이 아니고 초원에서 해상까지 광범위한 활동 영역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변진은 이러한 이동하는 사람들을 이용하여 영역 밖과의 군사·경제적인 유대를 획득하였던 것이다.

아울러 확인해 두어야 할 것은 위구르와 신라상인이 당 전반기부터가 아니라 후반기가 되어 본격적으로 확대한 세력이었다는 점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들과 변진의 결탁이 안사의 난 후 대두한 신진 세력끼리의 결속이라는 측면을 지녔다는 것이다. 이 연결이 있었기 때문에 안사군계 변진은 조정과 대치하기 위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얻는 것이 가능하였다. 요컨대 변진은 동부유라시아에서 신세력의 발흥이라는 전체적인 조류와 연동하면서 세력을 확립하고 그 지배를 정착해 갔던 것이다.

12) 森部豊, 『ソグド人の東方活動と東ユーラシア世界の歴史的展開』, 關西大學出版部, 2010.

2) 당대 변진체제의 변용·붕괴와 당조 멸망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제2부에서 다룬 穆宗期부터 僖宗期에 있어서의 변진체제의 변용에서 붕괴, 그리고 동부유라시아의 변동과의 관련성을 요약해 보겠다.

특히 중요한 轉機가 된 것은 위구르제국이 멸망한 840년대, 즉 武宗期였다. 이 시기에 당에서는 昭義節度使의 세습 可否를 둘러싸고 劉稹의 난이 발발하였다. 조정은 이것이 옛 平盧軍 세력의 주도에 의한 점을 문제로 여기고 특별에 나섰다.

당시 당조 北邊에는 위구르 유민집단(남하[南走] 위구르)이 출현하였고 조정은 그 대책에 부심하였다. 유진은 이 정세가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조정에 세습을 요청하였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무충은 남하 위구르의 本體가 거의 괴멸상태라는 인식하에 북변방어의 군사력을 유진 토벌에 할애하였다. 즉 유진의 난 발발 배경에는 남하 위구르를 둘러싼 북변 정세에 대한 유진 측과 당조 측의 인식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다만 유진은 같은 安史軍 계열 변진인 하삭삼진과 내통하였기 때문에 특별이 쉽지 않았다. 그래서 조정은 유진에게 허용하지 않으면서도 하삭삼진에게 藩帥 지위의 세습을 특권적으로 용인한다는 교섭을 행하였고 하삭삼진이 이를 수락하였다. 이 거래는 조정의 입장에서는 하삭삼진의 군사적 위협을 제거하고, 또 하삭삼진의 입장에서는 그 성립 이래의 목표였던 세습과 영역의 보유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쌍방에게 성과가 있었다. 그런데 하북의 안정은 원래 하삭삼진에 대한 방어를 담당하였던 河南을 중심으로 대규모 군축을 촉진시켰다. 그 결과 군대에서 방출된 병졸은 도적·밀매상이니 되고, 또 반란에 가담하여 하남의 정세불안을 야기하였다. 즉 안사군계 변진의 위협을 불식한다는 당조의 지침이 당 말에 특히 하남의 정세불안을 초래하였던 것이다(이상 제4장).

이상의 점들을 해명한 제4장에서 필자는 무종기야말로 憲宗(805.8~820.1)의 中興 이상으로 하삭삼진과 조정 관계의 전환점이었다고 주장하였다. ‘하삭 舊事’의 철폐를 도모한 현종의 강경책이 그의 사후에 바로 白紙로 되돌아간 것에 대해 하삭 구사를 용인한 무종기의 시책은 결과적으로 당 멸망에 이르기까지 하삭삼진의 위협을 없애는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무종기를 경계로 변진 반란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이 때문이다.

애초 하삭삼진 모두가 세습을 포기한 것은 현종 元和 15년(820)부터 목종 長慶 원년(821)까지의 겨우 1년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平盧·淮西 두 절도사를 해체시킨 것은 현종의 업적으로 당연히 평가받아야 하지만, 그가 결국 하삭삼진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못했다는 사실도 또한 동등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서장 10쪽의 【그림 1】에서 나타낸 당대 변진체제의 기본구조는 현종기가 아니라 하삭삼진에 대한 통제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간주한 목종기에 이르러 비로소 확립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목종기(820.1~824.1)에는 중화세계의 외부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 장경 3년(823) 당·위구르·吐蕃 간에 삼국회맹이 체결되어 삼국의 국경이 획정되었다.¹³⁾ 동시에 해역세계에서는 황해·동중국해 일대에 광대한 교역권을 구축한 張保臯의 활동이 개시되었다.¹⁴⁾ 삼국회맹이 각국의 군사충돌을 종식시키고 장보고가 당·신라·일본 간의 교역을 장악한 것을 고려하면 820년대는 내륙아시아 세계와 해역아시아 세계에 있어서도, 그리고 중화세계에 있어서도 안사의 난 후의 시행착오가 정착하여 일정한 안정이 이루어진 시기였다.

그 안정이 동요하는 것이 무종기(840.1~846.3), 즉 840년대였다. 이 시

13) 森安孝夫, 『シルクロードと唐帝國』, 講談社, 2007, 350~353쪽. [역자] 정병준, 『고구려 유민 이정기 일가의 변진사』, 동국대학교출판부, 2024, 298쪽, 301쪽 참조.

14) 蒲生京子, 「新羅末期の張保臯の擡頭と反亂」, 『朝鮮史研究會論文集』 16, 1979, 58쪽.

기에는 목종기에 확립된 변진체제가 붕괴되기 시작하였는데, 그 배경에는 삼국회맹에 참가하였던 위구르의 붕괴가 있었다. 또 이 시기의 해역아시아 세계는 장보고의 죽음(841)에 의해 그 아래에 규합되었던 상인들이 개별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¹⁵⁾ 또한 이 시기에는 무종에 의한 會昌의 폐불, 즉 외래종교와 외국인에 대한 배척이 실시되고 당이 그 국제성을 스스로 방기해 간 것¹⁶⁾도 아울러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840년대는 내륙아시아 세계와 해역아시아 세계가 당으로부터 서서히 분리되기 시작한 시기였다. 조정과 변진의 관계만을 다루면 확실히 현종 말기는 특수하지만, 보다 광역적이고 장기적인 시야에서 보면 변진체제, 심지어 당조를 뒤흔든 가장 중요한 변화는 무종기에 생겼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당은 위구르·토번과 달리 840년대의 획기 이후도 존속하였다. 왜냐하면 당은 비장의 카드로 북변 유목세력이라는 군사력을 남겨두고 이를 가지고 龐勛의 난과 같은 하남의 동란을 진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회종기가 되면 黃巢의 난과 거의 궤를 같이 하여 代北에서 사타세력의 난, 즉 李克用의 난이 발발하였다. 그 때문에 조정은 군사력의 핵심인 북변 유목민을 황소 토벌에 파견할 수 없었다. 당시의 상황을 변진체제의 문맥에서 파악하면 당이 自衛를 위해 배치한 하남과 북변 2곳의 군사력이 동시에 당조에게 반기를 든 것이 된다. 이는 당대 변진체제가 기능부전에 빠진 것을 의미했다. 종래에 당 멸망의 요인으로 황소의 난만을 들었지만 이극용의 난은 이에 필적하는 영향을 당에 주었다고 할 수 있다(이상 제5장).

15) 榎本涉, 『僧侶と海商たちの東シナ海』, 講談社, 2010, 56~60쪽.

16) 西尾賢隆, 「円仁の見聞した會昌廢佛(下)」, 『花園大學研究紀要』 11, 1980, 111쪽; 石見清裕, 「円仁と會昌の廢佛」, 鈴木靖民 編, 『円仁とその時代』, 高志書院, 2009, 141~142쪽; 中田美繪, 「唐代政治史上の會昌の廢佛 -ジェンナー秩序・宗教・外來人の視點から」, 『唐代史研究』 21, 2018, 67쪽.

이 제5장의 성과는 서장 첫머리에서 언급한 “(당은) 어째서 안사의 난으로부터 1세기 반이 지나 멸망하였는가”¹⁷⁾ 라고 하는 물음에 대한 필자 나름의 회답이다. 당대 번진체제는 예컨대 일부 지역에서 叛亂이 일어나도 이를 진압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河朔三鎮의 叛亂과 河南의 動亂만으로는 당을 멸망시킬 위협이 되지 못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당은 懿宗期까지 거듭된 內地 반란들을 평정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희종기에 당은 군사적인 숙련도가 매우 낮았다고 평가받는¹⁸⁾ 황소의 난을 쉽게 평정할 수 없었다. 그것은 당에게 있어 가장 중요하였던 북변 유목민의 난에 의해 왕조를 지키는 근간인 군사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당 멸망의 의의를 귀족제의 해체나 신흥층의 대두라고 하는 중국사의 문맥만이 아니라 보다 광역적인 시야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당 멸망 후 이극용의 난과 관련된 지역은 沙陀系 왕조 내지는 契丹의 지배하에 들어갔고 내륙의 초원세계와 밀접한 관련을 지속하였다.¹⁹⁾ 한편, 황소의 난에 석권된 지역에는 後梁과 吳越國이 성립하였는데, 이들 왕조는 수운과 해운을 이용한 교역망을 구축한 점에서 해역세계로 열린 세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²⁰⁾ 丸橋充拓이 단적으로 지적한 대

17) 즉 “안사의 난에 의해 존망의 위기에 빠진 당은 반란 후 끈질기게 부활하여 天祐 4년(907)까지 실로 144년 간 명맥을 보존하였다. 건국(武德 원년, 618)에서부터 반란 발발까지가 138년이므로 실은 반란 후 쪽이 더 길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 존속을 가능하게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역으로 어째서 안사의 난에서부터 1세기 반이 지나 멸망하였는가”(3쪽)라고 한다.

18) 佐竹靖彦, 「朱溫集團の特性と後梁王朝の形成」,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出版品編輯委員會 主編, 『中國近世社會文化史論文集』, 臺北,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1992, 508쪽.

19) 사타게 왕조와 거란에 대해서는 杉山正明, 『疾驅する草原の征服者 - 遼・西夏・金・元』(中國の歴史8), 講談社, 2005; 古松崇志, 『草原の制覇 - 大モンゴルまで』(シリーズ中國の歴史3), 2020, 64~97쪽 참조.

로²¹⁾ 당에 의해 연결되었던 해역세계와 초원세계는 당의 멸망과 함께 분리되었던 것이다. 황소의 난과 이극용의 난은 바로 그 분리를 상징하는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3) 河朔三鎮의 역사적 의의

그런데 당대 번진 중에서도 하삭삼진은 목종기에서 희종기에 이르는 여러 叛亂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당 멸망 후에도 존속하였다. 그래서 제3부에서는 당 멸망 이후 하삭삼진의 동정을 후량·사타·거란이라고 하는 다음 시대의 세력과 관련하여 고찰하였다.

당으로부터 선양을 받은 후량은 적극적으로 하북에 대한 통제 강화, 즉 ‘하삭 구사’의 철폐를 도모하였다. 그러나 건국 직후에 당을 대신하는 권위를 얻지 못한 후량은 그것을 실현하지 못하였다. 애초 후량의 번진체제, 특히 북변방위는 절도사와의 혈연적 관계에 의존하는 취약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 때문에 魏博節度使 羅紹威의 사망(910)을 계기로 한 柏鄉의 패전에 의한 후량 지지기반의 동요, 그리고 그것에 이은 朱全忠의 피살은 원래 자립성이 높았던 그들의 이반을 유발하였다.

그 중에서도 중요했던 것은 사타와 대치한 위박절도사의 거취이다. 위박이 후량의 藩屏으로 기능해 온 것은 그 군단이 당대 이래의 결속을 유지하였기 때문이지만, 후량은 그것을 잠재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고 분할에 나섰다. 그 결과 위박은 사타와 통하였고 후량의 북변방위 군사력은 상실되었다. 후량은 직접적으로는 李存勗에 의해 멸망하였지만,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하삭 구사’에 농락된 후량 자신에 의한 하북 대책의 일관되지 못

20) 오월국에 대해서는 日野開三郎, 「五代吳越國の對中原貿易」, 『日野開三郎東洋史學論集』 10, 三一書房, 1984, 19~203쪽.

21) 丸橋充拓, 『江南の發展 -南宋まで』, 岩波書店, 2020, VI~VII쪽, 94~96쪽.

한 점이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이상 제6장).

한편, 당 말에 盧龍節度使 관하의 武州 방면에는 위구르 유민이 안치 [安堵]되어 변경 방위를 맡고 있었다. 황소의 난이 시작된 것과 거의 같은 시기에 이 유민집단을 이끌었다고 생각되는 李茂勳이 幽州를 습격하여 절도사의 지위를 빼앗았다. 이극용의 난이 발발한 것은 그 직후였고 이후 노룡절도사는 사타를 최대의 敵對 상대로 하면서 대칭적인 과정에서 세력을 신장시켜 나갔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거란 대책이다. 노룡절도사는 거란에 의한 境域 침입에 대응해야 했고 몇 번인가 맹약[盟]을 체결하여 사태의 타개를 도모하였다. 다만 이 맹약은 매번 일회성이었고 양자의 항상적인 화평으로는 연결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사타·거란 간의 雲中會盟은 이극용이 죽은 후 아들 이존욱에게 계승되었다. 결과적으로 이 외교전의 성패는 노룡절도사가 건국한 燕 왕조의 멸망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지만, 거란과의 盟約에 의해 변경의 안정을 도모하였다는 의미에서 노룡절도사의 모색은 이후 국제관계의 선구적 시도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이상 제7장).

이에 대해 成德節度使는 사타와의 대립을 피하고 同盟關係를 맺는 것으로 세력을 유지하였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당시의 藩帥인 王鎔의 정치적 영향력에 있었다고 생각된다. 왕 씨는 文宗期에 壽安公主를 맞이한 이래 당 조정과 친밀한 관계를 구축하였고 변수 자리도 그녀의 자손이 계승하였다. 이에 더해 왕용은 禪僧인 趙州의 法嗣라고 하는 종교적 권위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당의 復興을 표방하고 또 불교를 이용하여 정권의 정당화를 도모하던 이존욱에 있어서 그의 즉위를 지지하는 돌도 없는 인재였다. 왕용 사후에 이존욱은 그 장례식을 집행하여 趙를 직할지로 만들어 가지만 그것은 단순히 현지 지배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즉위를 향한 장기적인 정치 전략의 일환으로 행한 것이었다. 하북을 지배하는 것은 군사적·경제적인 의의만이 아니라 왕조 건국을 향한 정치적 의

의도 컸다고 할 수 있다(이상 제8장).

하북삼진이 당의 문화·제도를 다음 시대로 전한 것은 종래에도 지적되었다.²²⁾ 원래 하북의 땅은 장기간에 걸쳐 당의 지배를 받지 않았고 따라서 조정의 수탈 대상이 되지 않았다.²³⁾ 또 희종 시기 동란의 영향도 거의 없었고 영내는 평온이 유지되었다. 그 때문에 하북에는 이전 당의 유풍이 가장 잘 남아 있었다. 예컨대 법 제도에 관해서는 定州에 남겨진 開元25年令이 북송 天聖令으로 계승되었고,²⁴⁾ 또 재정 관계의 인재는 魏州에서 사타 정권으로 들어갔다.²⁵⁾ 불교에 관해서도 폐불의 영향이 하북에 그다지 미치지 않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책 제3부의 성과는 이들 문화·제도를 유지한 하북삼진이 나아가 당을 승계한 정당성까지 후대 왕조에 전한 것을 나타낸다. 하북삼진은 당조 안에서 매우 특수한 위치에 있었고 조정으로부터 특권적인 취급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북삼진 안에는 당 멸망 후에도 그 권위가 일종의 ‘전통’으로 살아남았던 것이다. 하북삼진의 지지를 얻는 것은 당의 후계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하여 그 이반은 왕조의 존망에까지 관련되었다.

당 멸망 후의 하북삼진은 자칫하면 이후 왕조로 연결되지 않았다고 하고,²⁶⁾ 주전충과 이극용에게 꼼짝없이 농락된 듯이 묘사되어 왔다.²⁷⁾ 하

22) 竺沙雅章, 『征服王朝の時代 -宋・元-』, 講談社, 1977, 25쪽(중국사연구회 편역, 『중국역사』 하, 신서원, 1993, 27쪽).

23) 堀敏一, 「魏博天雄軍の歴史」, 『歴史教育』 6-6, 1958, 141~142쪽(再録・改題: 「唐五代武人勢力の一形態 -魏博天雄軍の歴史」, 『中國古代史の視點 -私の中國史學1』, 汲古書院, 1994).

24) 戴建國, 「《天聖令》所附唐令爲開元二十五年令考」, 『唐研究』 14, 2008, 18~19쪽.

25) 堀敏一, 「魏博天雄軍の歴史」, 142쪽.

26) 堀敏一, 「藩鎮親衛軍の權力構造 -唐から五代へ」, 『東洋文化研究所紀要』 20, 1960, 76쪽(再録: 『唐末五代變革期の政治と經濟』, 汲古書院, 2002).

27) 日野開三郎, 『支那中世の軍閥』, 三省堂, 1942, 164~165쪽(再録: 『日野開三郎東洋史學論集』 1, 三一書房, 1980).

지만 제3부에서 보았듯이 하삭삼진은 스스로 능동적으로 제후상대를 선택하였다. 후량의 흥망과 이존육의 정권 정당화는 하북의 거취와 크게 관련되었다. 하북은 결코 단순한 수탈의 대상이었던 것이 아니라 왕조 건국을 위해 확보해 두어야 할 정치적 요지였던 것이다. 게다가 후당 말에 幽州가 石敬瑭의 지배에서 이탈하여 거란과 통하며 燕雲16주 할양의 遠因을 만들었던 것,²⁸⁾ 하북의 남북을 分有한 거란과 사타 세력의 계보가 11세기 이후의 국제관계로 연결된다는 것,²⁹⁾ 북송과 거란에서 무인·문인의 많은 숫자가 하북 출신자로 구성되었던 것³⁰⁾ 등을 감안하면 당 멸망 후 하북지역과 거기서 살았던 사람들의 거취는 다음 시대의 패권을 좌우하였다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이다.

4) 당 제국의 멸망과 동부유라시아

이 책의 요약으로서 당 제국의 멸망이 동부유라시아의 역사전개 속에 어떻게 위치 지워질까를 고찰해 보겠다.

당이라는 왕조는 안사의 난을 기준으로 전반기와 후반기가 전혀 양상을 달리한다. 전반기의 당은 정연한 질서 하에 확실하게 '세계제국'이라고 부를 만한 위용을 자랑하였다. 만약 이것이야말로 당 본래의 모습이라고 인식한다면, 후반기는 왜소화된 제국이 雜然한 지배체제를 정리하지 못한 채 불만한 것도 없이 쇠퇴해 가는 과정이라는 인상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28) 日名智, 「燕雲十六州の割讓承認について」, 『東海史學』 38, 2003.

29) 古松崇志, 『草原の制覇 - 大モンゴルまで』, 98~100쪽.

30) 何冠環, 「宋初三朝武將的量化分析 - 北宋統治階層的社會流動賢相新探」, 『食貨月刊』 16-3, 1986, 21~23쪽(再録: 『北宋武將研究』, 香港, 中華書局, 2003); 伊藤一馬, 「北宋太祖・太宗期の内外軍事情勢と軍事指揮官 - 都部署を中心に」, 『大阪大學大學院文學研究科紀要』 59, 2019, 22쪽.

당의 건국집단은 유목세력인 鮮卑族에 연원이 있고 왕조의 원류는 북조, 나아가 5호16국기에까지 소급된다.³¹⁾ 한편으로 당은 남조의 문화와 제도, 즉 漢人的 요소도 흡수하였다.³²⁾ 이리하여 당은 漢人도 非漢人도 포섭한 지배를 구축하고 당시의 '세계'에 균림하였다. 즉 전반기의 당은 유목세력에 의한 中華 內地로의 유입이라는 5호16국기 이래의 역사 조류를 집대성한 존재였다.³³⁾

한편 후반기에 당 국내가 번진의 성립으로 분권적 경향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고 국제관계의 면에서도 당 1국의 패권이 종식하고 위구르·토번이 대두하였다. 9세기 중반 이후 이 삼국이 연이어 멸망하자 10세기에는 오대십국의 여러 왕조들이 흥망하고 그 추세는 이윽고 11세기에 거란·복송 등 복수 왕조의 병립시대로 전개되었다.³⁴⁾ 그 결과 안사의 난 단계에서는 실현할 수 없었던 '중앙유라시아형 국가'(정북 왕조라고도 할 수 있음)가 동부유라시아의 패권을 장악함³⁵⁾ 과 더불어 해상교역의 중요성도 높아졌다.³⁶⁾ 이러한 조류는 13세기 몽골의 통일로

31) 妹尾達彦, 『長安の都市計劃』, 講談社, 2001, 98~101쪽(세오 다쓰히코 저, 최재영 역, 『장안은 어떻게 세계의 수도가 되었나』, 황금가지, 2006, 111~114쪽); 森安孝夫, 『シルクロードと唐帝國』, 138쪽; 石見清裕, 『唐代の國際關係』(世界史リブレット97), 山川出版社, 2009, 86쪽.

32) 丸橋充拓, 『江南の發展 -南宋まで』, 77~80쪽; 會田大輔, 『南北朝時代 -五胡十六國から隋の統一まで』, 中央公論新社, 2021, 250~251쪽.

33) 妹尾達彦, 「中華の分裂と再生」, 樺山紘一 外 編, 『中華の分裂と再生 -三~十三世紀』(岩波講座世界歴史9), 岩波書店, 1999, 15쪽; 妹尾達彦, 『グローバル・ヒストリー』, 中央大學出版部, 2018, 98쪽; 渡辺信一郎, 『中華の成立 -唐代まで』, 200쪽(와타나베 신이치로 저, 이용빈 역, 『중화의 성립 -당대(唐代)까지』, 한울, 2023, 203~204쪽).

34) 妹尾達彦, 『グローバル・ヒストリー』, 98쪽.

35) 森安孝夫, 『シルクロードと唐帝國』, 85~86쪽. [역자] 모리야스 타카오 저, 권용철 역, 『실크로드 세계사』, 민속원, 2023, 44쪽, 59~60쪽.

36) 榎本涉, 『僧侶と海商たちの東シナ海』, 232~233쪽; 河上麻由子, 『古代日中關

귀결된다.

이상과 같이 4세기에서 7세기까지를 일련의 시대로 파악하고, 8세기 이후를 그것에 이어지는 시대 전개와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는 견해는 근래 중국에서도 소개되고,³⁷⁾ 또 개설서에도 채용되고 있다.³⁸⁾ 이와 같은 역사관에 입각하면 당 전반기와 후반기의 차이, 심지어는 그것을 나눈 안사의 난이 역사상 매우 큰 분수령인 것은 명백하다.³⁹⁾ 따라서 당 후반기란 동부유라시아가 하나의 도달점을 넘어 다음 시대로 향하기 시작한 여명으로 위치지울 수 있다. 이 책에서 보아 본 번진의 활동은 당 국내에서의 그러한 시대전개를 상징하는 事象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당대 번진의 역사는 결코 순전한 國內史인 것은 아니다. 특히 조정의 하북번진 대책이 유목제국인 위구르를 염두에 두면서 이루어진 것, 위구르·사타·거란이라는 유목세력의 흥망이 번진체제의 전개, 심지어는 당의 멸망에까지 깊은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제2장·제4장·제5장·제7장에서 서술한 대로이다. 이러한 존재형태는 전반기의 당이 주체적으로 내륙아시아 세계로 나아가 현지의 국가와 사회의 존재형태를 바꾸어 나갔던 것⁴⁰⁾ 과는 대조적이다. 후반기의 당은 오히려 내륙아시아 세계

係史-倭の五王から遣唐使以降まで』, 中央公論新社, 2019, 202쪽.

37) 구체적 예로서 안사의 난에서 澶淵의 盟까지를 일련의 흐름으로 파악한 張廣達, 「從‘安史之亂’至‘澶淵之盟’-唐宋變革之際的中原和北方」, 黃寬重 編, 『基調與變革-七至二十世紀的中國(三)』, 臺北, 國立政治大學歷史學系, 2008, 1~20쪽을 들 수 있다.

38) 2022년에 간행된 岩波講座世界歷史 시리즈의 제6권과 제7권은 바로 이러한 구성을 취하였다. 구체적으로는 荒川正晴, 「中華世界の再編とユーラシア東部」, 荒川正晴(責任編輯), 『中華世界の再編とユーラシア東部-四~八世紀』(岩波講座世界歷史6), 岩波書店, 2022, 3쪽, 70~72쪽 참조.

39) 森安孝夫, 『シルクロードと唐帝國』, 306~310쪽; 妹尾達彦, 『グローバル・ヒストリー』, 99쪽.

40) 荒川正晴, 『ユーラシアの交通・交易と唐帝國』, 名古屋大學出版會, 2010, 548쪽; 荒川正晴, 「シルクロードの交易と商人」, 永原陽子(責任編輯), 『人々がつな

로부터 전해진 변동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에 응해 지배체제를 유연하게 변화시켰다.

8세기 후반에서 10세기 초엽에 걸친 동부유라시아의 역사는 당, 즉 중화세계를 절대적인 중심으로 전개된 것이 아니라 내륙아시아 세계를 기점으로 한 변동이 중화 내지에 파급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당의 멸망이란 그러한 광역적인 역사전개에서의 연속적인 事象의 일환으로 위치지을 수 있다.